

알코올 의존자의 정서인식 특성과 자기개념과의 관계

최 송 희

현 명 호[†]

조 현 섭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본 연구는 알코올 의존자의 얼굴정서 인식결함을 확인하고, 알코올 의존자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적대적인 지각 특성과 자기개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개의 기본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22개의 얼굴표정사진을 알코올 의존자에게 보여 주었고, 사진에 제시된 얼굴표정에 가장 적합한 정서를 기본정서목록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알코올 의존자가 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의 정서를 분노, 경멸로 지각하는 적대적인 지각 편향과 분노와 경멸을 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의 정서로 지각하는 반적대적 지각도 함께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알코올 의존자는 정서범주명명과제에서 정상인보다 정확도가 낮았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었다. 또한, 알코올 의존집단에서 적대적 지각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반적대적 지각은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자는 자기개념이 부정적일수록 타인의 정서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정상인의 경우,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더라도 타인의 정서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과는 무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 의존자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정서적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알코올 의존자에서 타인의 얼굴표정을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특이적인 경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입각한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주요어 : 알코올 의존자, 정서인식, 적대적 지각 편향, 자기개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 02-820-5125 / E-mail : hyunmh@cau.ac.kr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우리는 분주히 상대방의 기분, 생각, 느낌을 해석하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한다. 원활한 인간관계는 이와 같은 상대방의 비언어적 단서를 적절하게 포착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Carson, Kessler, & Pape, 1999). 특히, 상대방의 얼굴표정에 담긴 기분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은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커다란 문제에 당면할 수 있다(Patterson, 1999).

최근 알코올 의존자의 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알코올 의존자의 정서인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일각에서는 알코올이 정서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Lang, Patrick, & Stritzke, 1999). 구체적으로 Monnot, Nixon, Lovallo와 Ross(2001)는 알코올 의존자가 대화과정에서 상대방의 정서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있음을 발견했다. Philippot 등(1999)은 최근에 해독과정을 마친 알코올 의존자의 광범위한 얼굴표정 해석결함을 보고하였다. 그 밖의 연구에서도 알코올 의존자는 분노, 슬픔, 행복, 혐오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며, 얼굴 자극의 정서적 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Oscar-Berman, Hancock, Mildwordf, Hunter, & Altman-Weber, 1990; Philippot et al., 1999; Kornreich, Blairy, Philippot, Hess et al., 2001).

알코올 의존자의 정서인식결함은 다른 정신장애 환자와 비교할 때, 손상 정도가 심각한 해 보인다. 알코올 의존자와 강박장애 환자의 얼굴정서 인식능력을 비교한 연구(Kornreich, Blairy, Philippot, Dan et al., 2001)에서 알코올 의존 환자는 강박장애 환자를 포함한 다른 질

환 환자에 비해 다양한 정서에서 더 심각한 손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알코올 의존자의 정서인식 결함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기분상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왜곡하여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즉, 알코올 의존자는 타인의 얼굴표정에 담긴 정서를 인식하는데 민감하지 못하여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알코올 의존자들은 대인관계가 왜곡되어 있어 정서적 불편감을 쉽게 경험한다(Morano & Yalom, 1991). 나아가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는 금주 이후, 알코올 의존의 재발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알코올 의존의 재발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퇴원한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금주군과 조절음주군을 포함한 19.1%만이 음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회복 중에 있었고, 80.8%가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요한, 김길숙, 오동열, 1998).

결국, 알코올 의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이들에게 재음주를 야기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시급한 접근이 요구되는 가운데, 얼굴정서 인식결함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최근, 알코올 의존자의 얼굴정서 해석 결함이 알코올 의존 발병에 선행하는 요인인지 또는 결과적인 요인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Kornreich et al., 2002). 이러한 결함이 기질적인 손상에 의한 것인가 또는 기능적인 손상에 의한 것인가 하는 논점이 혼재하는 가운데, Kornreich 등(2002)은 알코올 의존자의 얼굴정서 해석결함을 설명하는 두 가지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얼굴정서 해석결합이 알코올 의존의 발병에 선행한다는 설명으로 알코올 의존에 취약한 집단에서 비언어적 행동의 해석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술 결함이 보고된 바 있다 (Gaffney, Thorpe, Young, Collet, & Occhipinti, 1998).

두 번째는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가 본질적으로 얼굴정서 해석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알코올 의존은 금주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심각한하고 다양한 인지적 문제를 동반한다(Parsons, 1998). 따라서,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가 특정 뇌 영역에 작용하여 이와 관련된 얼굴정서 해석 과정이 손상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전두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Krill, Halliday, Svoboda, & Cartwright, 1997; Harper, 1998)가 있다. 또한, Kornreich 등(2002)도 얼굴정서 해석 기능에 대한 알코올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반구 전두엽의 기질적인 문제와 관련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얼굴정서 인식결합을 특정 부위의 뇌손상에 의한 인지적 결함으로 국한시키는 설명은 알코올 의존자들의 얼굴정서 인식결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Philippot 등(1999)은 알코올 의존자의 얼굴정서 인식 결함이 얼굴인식(facial recognition)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시공간적 손상(visuospatial impairments)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소 두 달 가량 금주한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얼굴정서해석의 오류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해석오류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rnreich, Blairy, Philippot, Hess et al., 2001).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투입 단계에서의 피질 구조 손상은 시각적 능력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의 입장은 이와 같은 특정 정서 인식의 손상을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힘들다(Sprengelmeyer et al., 1996).

주목할 만한 것은 알코올 의존자가 모든 정서에 대하여 손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히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알코올 의존자에게 정서인식과제를 실시한 Philippot (1999) 등의 연구에서 혐오(disgust) 정서를 담은 타인의 얼굴 표정을 분노(anger)와 경멸(contempt)로 해석하는 체계적인 편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알코올 의존자가 분노(anger)나 경멸(contempt)을 과잉귀인(overattribution) 하는 편향을 보이면서 많은 오류를 범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Kornreich, Blairy, Philippot, Dan et al., 2001).

한편, 알코올 의존자는 슬라이드로 제시된 얼굴자극이 자신을 응시하는 경우, 슬픔을 적대적인 정서(분노, 혐오)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지만, 얼굴자극이 다른 곳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rigerio, Burt, Montagne, Murray, & Perrett, 2002).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알코올 의존자의 적대적인 정서인식 편향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을 제공한다. 즉, 알코올 의존자의 적대적인 정서인식 편향과 알코올 의존자의 내부적인 요인 즉, 부정적인 자아상 및 대인관계 갈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마리이다.

일반적으로 자기개념(self-concept)은 자신의 경험을 지각하고 조직하는 틀로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이해하는 해석의 기반이 된다(Markus, Smith, & Moreland, 1985). 더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강력한 인지적 구조가 없을 때 타인에 대한 정보처리의 기준이 된다. 특히, 목적 대상에 대한 정보

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타인에 대한 사회적 지각과정에서 자기(self)가 자연스러운 참조점이 되기 마련이다(Markus, Smith, & Moreland, 1985).

이훈진(1999)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사람은 타인의 애매한 행동을 자신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명백하게 부정적인 타인의 행동을 더 적대적인 것으로 평정하고, 긍정적인 타인의 행동조차도 적대적인 의도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개념은 알코올 의존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많은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자의 자아상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Vaillant, 1983; Tarquinio, Fischer, Gauchet, & Perarnaud, 2001).

한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자는 자기를 묘사하는데 긍정적인 특성을 수용하거나, 부정적인 특성을 거부하는데 주저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특성 보다 부정적인 특성이 자신을 더 잘 묘사한다고 생각하였고, 긍정적인 특성보다 부정적인 특성을 더 잘 회상하였다(Tarquinio, Fischer, Gauchet, & Perarnaud, 2001).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알코올 의존자의 부정적 자기개념은 적응적인 대인지각과정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알코올 의존자가 타인의 얼굴표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지각자의 자기참조적 특징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행해진 알코올 의존자의 얼굴정서 인식결함에 대한 연구는 알코올 의존자와 정상인의 정서인식 정확도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알코올 의존자가 타인의 정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하는지를 수량화하여 이해할 수 있으나, 알코올 의존자가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오류를 범하는 지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Townshend와 Duka(2003)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개의 다른 정서를 혼합한 자극(예를 들면, 두려움 90%, 놀람 10%)을 제시하여 알코올 의존자의 정서인식 편향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단일 정서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알코올 의존자에게 두 개의 다른 정서를 혼합하여 보여주는 방법은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정서로 구성된 자극을 제시하되 알코올 의존자가 정서범주 명명과제에서 오류를 보이는 패턴(예를 들면, 슬픔을 분노로 명명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명명하는지)에 주목하여 알코올 의존자의 정서 인식 편향을 확인하고, 이와 부정적인 자기개념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즉, 알코올 의존자의 정서인식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적대적인(hostile) 해석 편향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부정적 정서 중에서 적대적 지각과 거리가 있는 슬픔이나 두려움과 같은 정서, 그리고 긍정적 정서인지 부정적 정서인지 논란이 있는 놀람(Teigen, Halvor, Tromso, & Norway, 2002)을 일괄적으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양분하는 방식은 지양하였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Ekman(1972)의 기본정서범주(기쁨, 슬픔, 분노, 놀람, 두려움, 경멸) 중에서 대인관계에서의 적개심을 반영하지 않는 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을 분노와 경멸로 오지각하는 경향을 적대적인 해석 편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알코올 의존자는 정상인보다 얼굴표정을

인식하는 정확도가 더 낮을 것이다.

2. 알코올 의존자는 정상인보다 자기 개념이 부정적일 것이다.
3. 알코올 의존자의 자기개념이 부정적일수록, 얼굴표정을 인식하는 정확도가 더 낮을 것이다.
4. 알코올 의존자의 자기개념이 부정적일수록, 얼굴표정을 적대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임상 집단

DSM-IV(1995)의 기준에 따라 정신과 의사가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한 25명의 남성으로 대전지역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 알코올 의존 기간은 11.56년이며, 평균 금주기간(가장 가까운 시점의 음주로부터 술을 마시지 않은 기간)은 8.93개월, 입원횟수는 평균 8.0번이다.

일반 집단

정상집단은 알코올 의존집단과 연령, 교육기간을 짝짓기(matching)한 25명을 남성을 선발하였다. 이들은 정신병적 경력이나 음주로 인한 문제가 없고, 음주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

해 병원(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외과, 치과 등 모든 과를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들로 경비원, 운전기사,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

정서범주 명명 과제

박수경(1998)이 사용한 28개의 얼굴표정사진 중에서 Ekman(1972)의 기본정서범주(기쁨, 슬픔, 분노, 놀람, 두려움, 경멸)에 포함되지 않은 6장을 제외한 22장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인화된 사진자극에 대해 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 경멸, 분노, 기타를 포함하는 7개의 보기가 주어지며 얼굴표정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서목록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정서범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박수경(1998)의 연구에서 정상인에게 개별 사진에 대하여 정서명명을 하도록 하였을 때 그 일치율이 가장 높은 정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정서지각의 정확도는 정답의 경우 1점, 오답의 경우 0점을 주어 그 점수를 합산하였다.

타인의 정서를 적대적인 정서로 지각하는 경향은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타정서(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를 분노와 경멸로 오판하는 빈도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이와 함께, 좀더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분노와 경멸을 타정서(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로 오판하는 빈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대적 지각으로 정의한 것과 대비되는 반대 경향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단, 분노를 두려움으로 지각한 경우 등 친화적인 지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수가 포함되므로 내용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적대적 지

표 1.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알코올 의존 집단 (n=25)	정상 통제 집단 (n=25)
연령	49.0세(10.8)	49.3세(13.0)
교육	10.4년(3.2)	11.6년(3.3)

각과 역방향적 의미를 지닌다는 관점에서 반 적대적 지각으로 명명하였다.

자기개념척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사용한 20 문항의 질문지에 가정(예, 우리 식구들은 나를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고 있다), 능력(예, 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측면을 추가하여 30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 측면의 자기개념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 각 하위영역별 문항수는 5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대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내적합치도 α 는 .92이었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Rogenberg의 자존감척도와는 .80의 상관이 있었고, 의미분별법을 사용한 서수균(1996)의 실제 자기개념 점수와는 .74의 상관이 있었다.

절차

각 피험자는 과제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피험자에게 70×70mm 크기의 인화된 컬러 사진을 제시하고 정서명명과제의 예제 1, 2를 풀도록 하였다. 이 때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과제수행 방식을 설명하였다. 정서명명과제를 실시한 후에 자기개념척도 질문지를 시행하였고, 과제의 총 수행시간은 2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 과

알코올 의존자의 정서인식 정확도와 자기개념, 적대적 지각, 반적대적 지각

표 2. 알코올 의존자와 정상인의 정서인식 정확도 자기개념, 적대적 지각, 반적대적 지각

	알코올 집단	정상 집단	<i>t</i> (<i>df</i> =48)
정확도	13.08(3.72)	15.44(2.45)	-2.64*
자기개념	101.12(18.42)	115.12(12.13)	-3.17**
적대적 지각	2.28(1.20)	1.24(.96)	3.36**
반적대적 지각	2.04(2.07)	1.64(1.60)	.76

p*<.05 *p*<.01

알코올 의존자와 정상인이 얼굴정서 인식 정확도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얼굴정서 인식 정확도는 알코올 의존자($M=13.08 \pm 3.72$)가 정상인($M=15.44 \pm 2.45$)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48)=-2.64$, $p<.05$. 자기개념은 알코올 의존자($M=101.12 \pm 18.42$)가 정상인($M=115.12 \pm 12.13$)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t(48)=-3.17$, $p<.01$. 또한, 타인의 얼굴정서에 대한 적대적 지각을 살펴본 결과, 알코올 의존집단($M=2.28 \pm 1.20$)은 정상인 집단($M=1.24 \pm .96$)에 비해 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을 분노 또는 경멸로 오지각하는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t(48)=3.36$, $p<.01$. 그러나, 분노 또는 경멸을 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으로 오지각하는 반적대적 지각의 경우,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48)=.76$, *n.s.*

자기개념과 얼굴정서 인식 정확도, 적대적 지각, 반적대적 지각간의 관계

알코올 의존자의 자기개념 점수와 얼굴정서 인식 정확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알코올 의존자의 자기개념

표 3. 알코올 의존자의 자기개념과 정확도, 적대지각, 반적대적 지각의 상관

	자기개념	정확도	적대적 지각	반적대적 지각
자기개념	-			
정확도	.28	-		
적대지각	-.42*	-.52**	-	
반적대적 지각	.11	-.48*	0.12	-

* $p < .05$ ** $p < .01$

표 4. 정상인의 자기개념과 정확도, 적대지각, 반적대적 지각의 상관

	자기개념	정확도	적대적 지각	반적대적 지각
자기개념	-			
정확도	-.06	-		
적대지각	.20	-.45*	-	
반적대적 지각	-.13	-.59**	.085	-

* $p < .05$ ** $p < .01$

점수와 얼굴표정을 인식하는 정확도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r = .28, ns$.

알코올 의존자의 자기개념과 적대적 지각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알코올 의존자의 자기개념 점수와 타인의 얼굴표정을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 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r = -.42, p < .05$. 즉, 알코올 의존자의 자기개념이 부정적일수록 정서인식과제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표정을 분노나 경멸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적대적 지각의 경우, 알코올 의존자의 자기개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11, ns$.

반면, 정상인은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개념 점수와 얼굴정서 인식 정확도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r = -.06, ns$, 정상인의 자기개념 점수와 얼굴표정을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 간에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r = .20, ns$. 즉, 정상인의 경우, 자기개념이 타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과 타인의 얼굴을 분노나 경멸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향과 관련이 없었다. 또한, 자기개념과 반적대적인 지각간에도 유의한 상관을 보

이지 않았다, $r = -.13, ns$.

논 의

본 연구에서 평균 8.93개월을 금주한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정서범주 명명 과제를 실시한 결과, 알코올 의존자가 정상인에 비해 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hilippot 등(1999), Kornreich 등(2003)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장기간의 금주 후에도 부정확한 정서인식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확한 정서인식의 실패는 시공간기능 결함만큼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 의존자의 인지기능 회복에 관한 Ryan과 Butters(1986)의 연구에 따르면 금주를 시작한 첫 주에 가장 많이 회복되고, 점차 회복율이 느려져 3-6주에는 완만해진다고 한다. 대부분의 인지기능은 금주를 시작한 1-2주 내에 회복되지만, 특정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Goldman, Williams, & Klisz, 1983). 구체적으로 알코올 의존자의 언어적 기능은 손상

되지 않거나 또는 손상이 있더라도 금주와 함께 쉽게 정상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지만, 시공간적 기능장애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Ellenberg, Rosenbaum, Goldman, & Whitman, 1980; Page & Linden, 1974; Page & Schaub, 1977).

얼굴정서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Kornreich, Blairy, Philippot, Hess et al., 2001)에서 2-3 주 동안 금주한 알코올 의존자의 부정확한 정서인식이 최소 2달 이상 금주한 경우에도 여전히 지속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평균 8.9개월을 금주한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알코올 의존자의 정서범주 명명능력의 저하가 금주와 함께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단기적인 손상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양상이 변화하지 않는 안정성 있는 결함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알코올 의존자는 정상인에 비해 자기개념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 의존자의 자아상이 부정적이라는 선행 연구들 (Vaillant, 1983; Beck, Wright, Newman, & Liese, 1993; Tarquinio, Fischer, Gaucher, & Perarnaud, 200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알코올 의존자에게 특이한 인격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코올 의존자는 자아약화와 자존심 유지의 장애 같은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Kohut(1971)은 알코올이 결함 있는 심리구조를 대처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알코올 의존자는 정상인에 비해 타정서(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를 분노나 경멸과 같은 적대적인 정서로 잘못 지각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이들은 내면적으로 적대감을 느낄 여지가 많고, 이에 따라 부적절하게 상대방에게 적의를 나타내거나 대인관계에서 더욱 빈

번하게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더구나, 알코올 의존자를 쉽게 자극시키는 적대적 지각 경향은 이들이 더 많은 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여지를 남긴다.

이와 비교해 분노나 경멸을 타정서(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로 인식하는 경우가 알코올 의존 집단과 정상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알코올 의존자의 광범위한 얼굴인식 손상 개념과는 대비되는 적대적 지각의 특이성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 실제로 McCormick과 Smith(1995)은 선행 연구에서 적대감이 재발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으며, Marlatt(1996)도 알코올 의존자의 대인관계 문제를 비롯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상태가 재발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인식하였다. 특히, Marlatt은 그의 물질 남용 재발에 관한 인지-행동적 모델에서 대처기술(coping skill)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음으로, 알코올 의존자와 정상인 모두 얼굴정서인식 정확도와 자기개념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개념과 적대적 지각간의 관계에서 알코올 의존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대비되는 결과는 얼굴정서인식 정확도와 적대적인 인식편향이 동일한 범주인 알코올 의존자의 정서인식에 대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인식 정확도는 정서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맞고, 틀리는 식으로 양적으로 환산한 개념으로 자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인지구조인 자기개념과는 별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한편, 적대적인 인식편향은 정서인식과정에서 일어나는 적대적인 오류 패턴에 주목하여 알코올 의존자가 대인지각에서 보이는 특징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내재하는 부정적인 자아

상 및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불편감이 더욱 함축되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 의존의 높은 재발율을 비롯하여 우리가 당면하는 알코올 의존에 대한 경험적 보고들은 회복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지울 수 없게 한다. 또한, 가족, 친지, 동료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에 이미 익숙해진 알코올 의존자들에게 적대감은 어쩌면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핵심적인 감정일지 모른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치료적 함의는 알코올 의존자의 적대적인 지각 특성을 앎으로써 이들의 단주 및 사회적 재활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붕괴된 채로 사회적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장면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단주를 결심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더라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의 적대적 지각 편향은 이들이 더욱 역기능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더 효과적인 사회적 복귀와 적응을 위하여 환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알코올 의존 치료에 있어 부정적인 자기개념 뿐 만 아니라 적대적인 정서해석오류에 대한 비중 있는 접근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적대적인 정서인식편향이 대인관계 갈등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분노 관리(anger management)를 비롯한 생활스트레스 관리전략에 대한 훈련이 재발 방지에 유용한 개입점이 될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자의 자기개념과 타인의 얼굴표정

을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패턴 간에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두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둘째, Beck(1967)은 인지이론에서 우울증이 긍정적 정보를 배제하고, 부정적 정보를 과장하는 지각 편파를 초래한다고 가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은 자기개념 및 대인지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코올 의존자의 상당수가 임상적으로 우울감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배제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 점은 한계점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정상인과 알코올 의존자 각각 25명이었다. 이러한 피험자수는 집단 간 차이를 보기에는 적합하나, 상관관계를 보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적은 수의 피험자로 인한 불안정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상관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며, 추후의 연구에서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타인의 얼굴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은 고도의 인지적 기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알코올 의존자의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한 정서인식과정의 역기능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의존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손상 정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성차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피험자를 남성으로만 국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제한적이며, 양성 모두의 정서 인식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대인대면상황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다양한 채널을 분석한 결과, 언어적 채

널이 7%, 비언어적 채널 중 음성이 38%, 얼굴 표정이 55%를 차지한 바 있다. 이처럼 정서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통로에는 얼굴표정 뿐만 아니라 목소리, 제스처 등의 다양한 채널이 존재한다(배도희, 2001). 따라서 얼굴표정 이외의 비언어적 요소인 목소리, 제스처 등을 포함한 복합메시지와 다양한 정서관련 상황을 혼합한 정서인식 평가 도구를 사용한다면 정서인식에 대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문요한, 김길숙, 오동열 (1998). 알코올리즘 치료프로그램 입원환자들의 퇴원 후 경과에 대한 연구. *중독정신의학*, 2(2), 227-235.
- 박수경 (1998). 정신분열증 환자의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인식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도희 (2001). 비언어적 정서인식과제 수행이 아동 및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1996). 자기 집중 주의, 실제 자기 개념 및 자기 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 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 (1999).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기개념과 추론편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8(1), 1-15.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 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77-29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5). *DSM- 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 Carton, J. S., Kessler, E. A., & Pape, C. L. (1999). Nonverbal decoding skills and relationship well-being in adult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s* 23, 91-100.
- Ekman, P. (1972). Univers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s. In J. K. Col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1* (pp. 207-283).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Ellenberg, L., Rosenbaum, G., Goldman, M. S., & Whitman, R. D. (1980). Recoverability of psychological functioning following alcohol abuse: Lateralization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4), 503-510.
- Frigerio, E., Burt, D. M., Montagne, B., Murray, L. K., & Perrett, D. I. (2002). Facial affect perception in alcoholics. *Psychiatry Research*, 113(2), 161-171.
- Gaffney, L. R., Thorpe, K., Young, R., Collet, R., & Ochipinti, S. (1998). Social skills expectancies and drinking in adolescents. *Addictive Behaviors*, 23, 587-599.
- Goldman, M. S., Williams, D. L., & Klisz, D. K. (1983). Recoverability of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older alcohol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3), 370-378.
- Harper, C. (1998). The neuropathology of alcohol-specific brain damage or does alcohol

- damage the brain. *Journal of Neuropathology and Experimental Neurology*, 57, 101-110.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rnreich, C., Blairy, S., Philippot, P., Hess, U., Noel, X., Streel, E., Le Bon, O., Dan, B., & Pelc, I., (2001). Deficits in recognition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 are still present in alcoholics after mid- to long-term abstine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July, 533-542.
- Kornreich, C., Blairy, S., Philippot, P., Dan, B., Foisy, M. L., Hess, U., Le Bon, O., Pelc, I., & Verbanck, P. (2001). Impaired emotional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in alcoholism compared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normal controls. *Psychiatry Research*, 102, 235-248.
- Kornreich, C., Philippot, P., Foisy, M. L., Blairy, S., Raynaud, E., Dan, B., Hess, U., Noel, X., Pelc, I., & Verbanck, P. (2002). Impaired emotional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is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problems in alcoholism. *Alcohol & Alcoholism*, 37(4), 394-400.
- Kornreich, C., Foisy, M. L., Philippot, P., Dan, B., Tecco, J., Noel, X., Hess, U., Pelc, I., & Verbanck, P. (2003). Impaired emotional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in alcoholics, opiate dependence subjects, methadone maintained subjects and mixed alcohol-opiate antecedents subjects compared with normal controls. *Psychiatry Research*, 119, 251-260.
- Krill, J. J., Halliday, G. M., Svoboda, M. D., & Cartwright, H. (1997). The cerebral cortex is damaged in chronic alcoholics. *Neuroscience*, 79, 993-998.
- Lang, A. R., Patrick, C. J., & Stritzke, W. G. K. (1999). Alcohol and emotional response: A multidimensional-multilevel analysis. In K. E. Leonard & H. T. Blane(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2nd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328-371.
- Marlatt, G. A.(1996). Taxonomy of high-risk situations for alcohol relaps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a cognitive-behavioral model. *Addiction*, 91, 37-39
- Marlatt, G. A., & Gordon, J. R. (1985). *Relapse prevention: Maintenance strategies in the treatment of addictive behaviors*. New York: Guilford Press.
- Markus, H., Smith, J., & Moreland, R. L. (1985). Role of the Self-Concept in the Perception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6), 1494-1512.
- McCormick, R. A., & Smith, M. (1995). Aggression and hostility in substance abusers: The relationships to abuse patterns, coping style, and relapse triggers. *Addictive Behaviors*, 20, 555-562.
- Monnot, M., Nixon, S., Lovallo, W., & Ross, E. (2001). Altered emotional perception in alcoholics: Deficits in affective prosody comprehension.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5(3), 362-369.
- Motano, R. A., & Yalom, I. D. (1991). Approach to chemical dependency: chemical dependency

- and interactive group therapy-a syn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41, 269-293.
- Oscar-Berman, M., Hancock, M., Mildwordf, B., Hunter, N., & Altman-Weber, D. (1990). Emotional perception and memory in alcoholism and aging.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4, 384-393.
- Page, R. D., & Schaub, L. H. (1977). Intellectual functioning in alcoholics during six months' abstine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8, 1240-1246.
- Parsons, O. A. (1998). Neurocognitive deficits in alcoholics and social drinkers: the continuum?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2, 954-961.
- Patterson, M. L. (1999). The evolution of a parallel process model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P. Phillipot, R. S. Feldman, & E. J. Coats(Eds.) *The Social Context of Nonverbal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317-347.
- Phillipot, P., Kornreich, C., Blairy, S., Baert, I., Dulk, A. D., Le Bon, O., Streel, E., Hess, U., Pelc, I., & Verbanck, P. (1999). Alcoholics' deficit in the decoding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3, 1031-1038.
- Ryan, C., & Butters, N. (1986). Neuropsychology of alcoholism. In D. Wedding, A. M. Horton, Jr., & J. S. Webster(Eds.), *The Neuropsychology Handbook*. New York: Springer.
- Sprengelmeyer, R., Youg, A. W., Calder, A. J., Karant, A., Lange, H., Homberg, V., Perrett, D. I., & Rowland, D. (1996). Loss of Disgust: perception of faces and emotions in Huntington's disease. *Brain*, 116, 1647-1665.
- Tarquinio, C., Fischer, G., Gauchet, A., & Perarnaud, J. (2001). The self-schema and addictive behaviors: Studies of alcoholics patients.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0 (2), 73-81.
- Teigen, Halvor, K., Tromso, U., & Norway. (2002). When are success more surprising than failures? *Cognition & Emotion*, 16(2), 245-268.
- Townshend, J. M., & Duka, T. (2003). Mixed emotions: alcoholics' impairment in the recognition of specific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Neuropsychologia*, 41, 773-782.
- Vaillant, G. E. (1983). *The natural history of alcoho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원고접수일 : 2006. 7. 24

게재결정일 : 2006. 10. 2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ature of Emotion Recognition and Self-Concept in Alcoholics

Song-Hee Choi Myoung-Ho Hyun Hyun-Seob Cho

Chung_Ang University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alcoholics' deficit in recognition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 and to investigate alcoholics' feature in process of recognizing others' emo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subjects were presented with 22 photographs of the facial expressions showing 6 basic emotions. The emotional facial expression decoding task (participants were asked to identify the emotion which best represents the affect expressed on the face of each photograph) were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This study also examined alcoholics' bias to misunderstand happiness, sadness, surprise, and fear as anger or contemp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hostile perception and self-concep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lcoholics had lower scores than normal controls on the emotional facial expression decoding task. Second, the alcoholic's self-concept was more negative than normal subject and alcoholic's hostile perception was higher than normal subject. Third, alcoholic's negative self-concept was correlated with hostile perception on emotional recognition. On the other hand, normal control's negative self-concept was not related to hostile perception bia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alcoholics had a problem with the understanding of others' nonverbal emotional information and they had the feature to interpret others' facial expression hostilely. Therefore, intervention is needed on alcoholics' hostile perception bias and negative self-concept in order to manage interpersonal problems which promote relapse.

Keywords : alcoholics, emotion recognition, hostile perception, self-concept